



구슬

# 페퍼스 위기 속 빛난 장신센터 구슬

“코트에서 오래 뛰는 모습을 항상 꿈꿔왔어요. 프로 리그에서 풀타임 출전하는 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고 떨렸는데, 간절히 바라던 목표가 이뤄져서 굉장히 좋아요.”

센터 구슬은 위기에서 더욱 빛났다.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크고 작은 부상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 구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다.

구슬은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최근 3경기(GS칼텍스-한국도로공사-KGC인삼공사)에서 선발 출전해 풀세트를 소화했다. 이현은 허리 통증으로, 박사랑은 개인 사정으로 결장하면서 구슬이 센터 최후의 보루로서 코트에 오를 것이다.

구슬은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엘리자벳·이한비·박경현과 호흡을 적적 맞췄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토스가 안정됐으며, 하혜진·최가은과 속공 플레이도 자연스러웠다.

특히 181cm 큰 키를 활용한 공격적인 플레이가 돋보였다. 센스 있는 오픈 공격으로 기습 득점을 올리기도 하고, 인삼공사전에서는 한 세트에서만 블로킹 3득점을 뽑아내면서 포효했다.

구슬은 “신장이 큰 만큼, 블로킹과 공격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 장점을 살려서 플레이하자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현·박사랑 결장에 3경기 풀타임 181cm 키 공격적 플레이 돋보여 엘리자벳·이한비 등과 호흡 척척 김형실 감독 “좋은 센터 얻어 소독”

김형실 감독도 “구슬이 선발로 나가서 당황하지 않고 제 몫을 다 했다. 앞으로도 박사랑, 이현과 함께 센터로서 역할이 기대된다”며 “경기는 져들지라도 좋은 센터를 얻은 게 오히려 소득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경남 진주 선명여고에서 ‘유망주’로 꼽혔던 구슬은 지난 2019-2020시즌에 드래프트 3라운드 1순위로 KGC인삼공사에 입단하면서 V리그에 입성했다. 하지만 확장 시절부터 안고 있었던 무릎 부상을 당해 팀을 탈퇴한 구슬은 1년 동안 실업리그 양산시청에서 활동했고, AI페퍼스를 통해 다시 기회를 잡았다.

지난 22경기 59개 세트에서 교체 선수로 얼굴을 비췄던 그는 마침내 최근 3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다.

구슬은 “감독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가장 큰 힘이 됐다. 보강운동을 꾸준히 한 덕인 것 무릎 부상도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구슬의 단점은 아직 부족한 경기 경험이다. 네트 싸움에서 밀리거나 실수로 볼을 너무 낮게 세트하는 경우, 수비 동선이 겹치는 경우 등 순간 집중력이 흔들려 발생한 작은 실수들이 많다.

그는 “지난 경기들에서 순간 순간 멘탈이 흔들리는 부분이 많았다.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숙제다”며 “매 경기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슬의 목표는 역시 ‘5승’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여자배구 리그가 일시정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팀 내에서 크고 작은 부상병이 속출하자 ‘부상 선수들이 나오지 않고 시합을 잘 마무리하자’는 목표가 더 커졌다”고 한다.

“언니들과 잘 이겨내자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고 응원하고 있어요. 또 제 뒤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2연승...포스트 시즌 향해 순항

강경민 13득점·3도움 맹활약 골키퍼 우하림·박조은 선방쇼 서울시청 27-24로 꺾고 4위 지켰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2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6일 강원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3라운드 서울시청과 경기에서 27-24(14-12, 13-12)로 승리했다.

지난 4일 부산시설공단과의 경기에서 21-18로 승리한 광주도시공사는 2연승을 달리며 10승8패(승점 20)로 4위에 머물렀다.

광주도시공사는 공수의 조화로 승리를 쟁했다.

13득점, 3도움의 활약을 펼친 강경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골키퍼 우하림과 박조은은 각각 50%, 41.7%의 방어율로 골문을 든든하게 지켰다. 박조은은 36개 슈가운데 15개를 막아냈다.

서울시청의 끈질긴 추격으로 전반을 14-12로 마감한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5분, 1점 차까지 쫓기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박조은의 슈퍼세브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후 원선필과 정현희의 연속 득점으로 승기를 잡은 광주도시공사는 차분하게 경기를 주도하며 27-24, 3점차 승리를 거뒀다.

광주도시공사는 포스트시즌 진출 마지막전인 4위에 랭크돼 있으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을 치러야할 처지다.

3위 부산시설공단(10승 1무 7패-승점 21)과 승점 차가 1점이고 5위 인천시청과는 한 게임차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각 팀들이 근소한 승점차로 서로 물고 물리는 접전을 펼치고 있어 포스트 시즌 진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종전까지 가야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가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1일 경남개발공사, 13일 삼척시청, 18일 컬러풀대구와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는 코로나19도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두 게임은 치르지 못했고 향후 추가 감염도 배제할 수 없어 감염병 관리가 시즌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오 감독은 “코로나 방역도 전력 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선수단 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국 남자테니스 세계 16강 해냈다

오스트리아 3-1로 꺾고 15년만에 데이비스컵 파이널스 진출

한국 남자 테니스가 15년 만에 세계 16강에 진출했다.

박승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은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 코트에서 열린 2022 데이비스컵 테니스 파이널스 예선(4단 1복식) 오스트리아와 경기에서 종합 스코어 3-1로 승리했다.

전날 1, 2단식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한국은 이날 복식에서 남지성(복식 247위·세종시청)-송민규(복식 358위·KDB산업은행) 조가 오스트리아의 알렉산더 엘러(복식 105위)-루카스 미들러(복식 117위) 조를 2-0(6-4 6-3)으로 꺾어 승기를 잡았다.

이어 열린 3단식에서 나선 애이스 권순우(65위·당진시청)가 테니스 노바크(143위)를 2-0(7-5 7-5)으로 물리치며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 남자 테니스가 국가대표전인 데이비스컵 16강에 오른 것은 2007년 9월 슬로바키아에 3-1 승리를 거둔 이후 이번이 15년 만이다.

우리나라가 데이비스컵 16강에 진출한 것은 1981년과 1987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권순우는 전날 2단식에서 유리 로디오노프(194위)를 2-0(7-5 6-4)으로 제압해 혼자 2승

을 따냈다.

권순우는 이날 3단식 상대 노바크에게 전날까지 2전 전패를 기록했지만 설욕전을 펼치며 한국의 16강행을 책임졌다.

특히 마지막 2세트에서는 게임스코어 3-0으로 앞서다 5-5로 따라잡히는 위기를 이겨내고, 내리 두 게임을 따내 노바크의 추격을 뿌리쳤다.

세계 16강인 데이비스컵 파이널스는 9월 4개 조로 4개국씩 조별리그를 벌이며 각 조 상위 2개 나라가 11월 8강 토너먼트를 치러 우승팀을 정한다.

올해 16강에는 지난해 결승에 오른 러시아, 크로아티아, 와일드카드를 받은 영국과 세르비아가 이미 진출해 있다.

다만 지난해 우승국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테니스연맹(ITF)의 제재로 앞으로 별도 발표가 있을 때까지 데이비스컵 등 국가대표전에 출전하지 못한다.

이번 예선은 한국-오스트리아 경기 외에 프랑스-에콰도르, 스페인-루마니아, 핀란드-벨기에, 미국-콜롬비아, 네덜란드-캐나다, 브라질-독일, 슬로바키아-이탈리아, 호주-헝가리, 노르웨이-카자흐스탄, 스웨덴-일본, 아르헨티나-체코의 대결로 진행되며 이진 나라들이 16강에 합류한다. /연합뉴스



신의현이 6일 오전 중국 장자커우 국립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좌식 18km 경기에서 결승선을 향해 마지막 오막막코스를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평창 영웅’ 신의현 크로스컨트리 18km 8위

‘평창 영웅’ 신의현(42·창성건설)이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 두 번째 레이스에서도 메달에 닿지 못했다.

신의현은 6일 중국 장자커우 국립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좌식 18km에서 49분26초2를 기록, 출전 선수 25명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전날 이번 대회 첫 레이스였던 바이애슬론 남자 스프린트 좌식 6km에서 12위를 기록한 신의현은 이날도 입상이 불발됐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세계적인 강자로 꼽히는 신의현은 올해 1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열린 장애인 노르딕스키 세계선수권대회 크로스컨트리 18km에서 은메달을 따며 베이징 대회 전망을 밝혔지만, 고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전했다.

3km의 코스를 6바퀴 도는 이날 경기에서 신의현은 3km 지점을 5위로 통과했지만, 3~6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며 8위로 밀렸다. 8.6km 지점 통과 기록은 9위까지 떨어졌다.

이를 악물고 15km 지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한 신의현은 16km 지점을 6위의 기록으로 통과했다.

하지만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순위가 다시 밀리고 말았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사상 첫 동계패럴림픽 첫 금메달을 포함해 메달 2개(금1·동1)를 따낸 신의현은 두 대회 연속 메달 획득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아직 4개 종목이 남아 있다.

그는 8일 오전 11시(한국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바이애슬론 남자 좌식 10km에 출격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더 배트맨
2관	극장판 주술회전 0, 언차티드
3관	해작: 도깨비 깃발
4관	더 배트맨
5관	더 배트맨, 킹메이커
6관	더 배트맨, 언차티드, 극장판 바다 탐험대 옥토포: 해저동물 대탈출
9관	더 배트맨, 시라노
7관	세네케를, 인테벨름, 나이트메어 앨리, 나일 강의 죽음
극장판	주술회전 0,
8관	세네케를,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해작: 도깨비 깃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커스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